

구세주의 약속, 남북통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만남은 그야말로 깜짝 회담이다. 이날은 무덤겠다는 기상예보와 다르게 가을 날씨처럼 선선하여 만남을 도왔다.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 남과 북으로 나누는 비무장지대 위에 있는 판문점, 66년전 정전협정을 체결했던 바로 그곳에서 미국을 철천지 원수라 부르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을 한때는 악의 축이라고 부르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평화의 약속을 교환했다.

트위터로 시작해 역사적인 DMZ 만남이 이뤄진 것은 정상적인 외교 루트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두 지도자의 현실적인 이해관계, 즉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전해 들었지만 직접 만나 확인하고 싶었고, 김 위원장도 미국이 계속 대화를 진전시키려는 생각이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판단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이런 번개미팅은 참으로 누가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남북통일 공약하신 구세주

만천하에 이미 수없이 천명되었듯이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당신을 전지전능한 구세주로 믿어주지 않는 인생들을 향해 5대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5대공약을 완벽하게 실천하여 당신이 전지전능한 구세주임을 입증하셨다. 오늘 이 글에서 부각하고 싶은 것은 5대공약 중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하는 점이다.



남북미 정상들이 6월 30일에 판문점에서 만나다니...

첫째, 조희성님은 1980년 북한의 남침 계획을 무산시켰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의 총탄을 맞고 서거하자 '서울의 봄'이 오면서 정국은 혼란 속에 빠졌다. 이런 혼란을 틈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은 정권을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에 시위가 계속되었다. 이때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지시로 비행기 500대를 띄워 남침을 노렸지만 김일성의 최후 공격 명령이 통신장애로 불발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남북전쟁을 막기 위해 통신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두번째, 조희성님은 공산주의를 말살시켜 남북전쟁의 씨앗을 없앴다.

조희성 구세주의 5대공약 중 가장 핵심적 공약은 바로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74년간 계속되면서 전 세계의 3분의 2 이상의 국가를 삼킨 이념이다. 좌우 이념대립

은 언제라도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무서운 대결장이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없애지 않으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공산주의를 없앴던 것이다. 그 연장선 상에서 남북전쟁 또한 3차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구세주 5대공약의 하나로 기록되었던 것이다.

세번째,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남북전쟁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조종하셨다. 북한은 유엔 가입을 원하지 않다가 급작스런 변신을 하여 남한보다 앞서서 유엔가입신청을 하였고, 1991년 9월 18일 열린 제46차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이 각기 별개의 의석을 가진 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국제 사회의 제재 및 압력을 받기 때문에 남북전쟁 발발을 어렵게 만든 국제정치적 제동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방법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검증된 듯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상식(常識)에 속지 말아 달라는 거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상식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명칭한 다수에 의해 시공창으로 기어올라가는 영성만 민주주의 걸음걸이와 동일하다. 먼저 걸어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사람들의 말이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다.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 망가진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기인한다는 말씀이 정확하다. 불로불사를 만나게 되는 길도 또한 마음에 의해서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정확하다. 그래서 불로불사의 길을 걷노라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마귀들을 만나 보게 될 것이고 고독의 마도 연젠가 만나시리라. 그때 가면 이 길을 먼저 걸었던 선구자들, 외로워도 외롭다고 표현 못하고 마음속에서 삭고 걸어간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게 되시리라.*

안녕 송사 / 호주 시드니 승리재단

안녕 송사 / 호주 시드니 승리재단

자신속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가 우리의 목표

네번째, 남북관계가 화해의 무드로 바뀔 수 있게 되려면 북한 최고지도자와 대화 가능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남북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나 김 전 대통령은 자신을 통일대통령으로 삼겠다는 조희성 구세주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다. 2000년 김대중 김영일 남북정상회담 후 곧 남북 교류가 시작되어 통일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후속조치들이 불발에 그치면서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한 북한과 대화를 계속 추진하였지만 구세주의 구속과 보광으로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이 보수 대통령들의 당선으로 이어져 대북 화해무드가 깨지게 되었다.

구세주께서는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노무현을 우리 편에 속한 사람이라고 설교하셨다. 노무현의 영원한 친구,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북미 대화를 막후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게 한 공로가 있다. 추후 남북한 및 북미 관계가 어떻게 발전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구세주께서 남북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100% 믿고 있다.

승리제단은 정치적으로 누구 편도 들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자신 속에 있는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더 나아가 온 우주가 하늘나라로 변화되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용맹히 이겨나갈 뿐이다.*

방법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검증된 듯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상식(常識)에 속지 말아 달라는 거다. 보통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상식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명칭한 다수에 의해 시공창으로 기어올라가는 영성만 민주주의 걸음걸이와 동일하다. 먼저 걸어가서 확인하고 또 확인한 사람들의 말이 귀를 기울여 보라는 거다.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 망가진다.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기인한다는 말씀이 정확하다. 불로불사를 만나게 되는 길도 또한 마음에 의해서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는 말이 정확하다. 그래서 불로불사의 길을 걷노라 하면 여러 가지 종류의 마귀들을 만나 보게 될 것이고 고독의 마도 연젠가 만나시리라. 그때 가면 이 길을 먼저 걸었던 선구자들, 외로워도 외롭다고 표현 못하고 마음속에서 삭고 걸어간 그분들의 심정을 이해하시게 되시리라.*

안녕 송사 / 호주 시드니 승리재단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62> “이긴자가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나라고 하는 마귀가 약 6,000년간 하나님을 지배해 왔지만 오늘날 한국 땅에 나라고 하는 마귀를 죽이는 위대한 이긴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멸하여 죽이고 잠령을 하신 것이다.

이긴자가 6,000년간 우주를 주관했던 대장마귀를 멸해버리고 그 왕위를 빼앗

아 지금 우주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귀를 모조리 전멸시키기 위하여 전략상 우주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긴자의 시대가 도래한 지 벌써 오래됐는데도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세상 말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노년행복설계하기 노인의 무위(無爲)·무료(無聊)의 문제

노인의 무위·무료의 문제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조기정년으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상실, 핵가족화와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정 내 역할의 상실, 은퇴 후의 길어진 노후생활을 위한 소일(消日)자료 및 여가 이용 시설의 부족 등의 요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뿌리가 아닙니다. 100세 가까이 살 것이라는 '시대의 흐름'을 그 누구도 감히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100세까지 살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미리 조성될 것 같았다면, 은퇴 후 노년의 긴 삶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거 평균 60~70세가 사망연령대일 때는 사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선에서 물러나 조금 편히 살만하면 사망하였기 때문에 노년의 무위 무료란 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은퇴 후, 무위 무료한 생활을 하는 노인 인구가 많아 사회문제화 되었으므로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노년 무위 무료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이 되는 길은 오직 '긴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에 큰 틀에서 고민하고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미터를 뛰는 선수는 10초 안에 전력을 다하여 질주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42.195킬로만 먼 거리를 100미터처럼 뛰어서는 금방 녹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 또한 마라톤을 뛰는 것 과 같습니다. 자기 보폭과 체력 구간 전략 호흡 등의 안배를 잘하여 마지막 결승선을 무사히 통과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노인 세대는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인 만큼, 황무지와 같은 노년의 무위 무료를 멎지 않게 푸른 초원으로 탈바꿈시킬 것을 성원합니다.*

김주호 기자

5지역 탐골공원 전도활동

무더위 속에서도 진리 전파



탐골공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전도지를 배포하기에 딱 좋은 곳이다. 또한 퇴직 후 무료함을 달래려야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한번쯤 들리는 명소(名所) 이따금 알

수상 살아있는 두 가지 이유

때때로 아주 무서운 강적이 나타나 기진맥진 할 때가 있다. 고독(孤獨)의 마(魔)다. 아무도 없는 항해, 하절한 대화라도 나눌 상대가 없는 막막한 바다사막, 잔잔한 파도에도 기가 질리건만 고독의 마라는 사나운 강풍이 일어 집체만한 파도가 출렁일 때면 애간장이 다 타들어가고 그래서 입천장까지도 다 말라버린다. 그 놈과 끔강대며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 먹고 나면 만사가 다 싫어진다. 지긋지긋하다.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다. 세상의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도 아니다. 높은 벼랑에 올라 눈 딱 감고 몸을 던지고 싶다. 그렇게 최후까지 물리다 보면 일점의 소리도 없이 한도 끝도 없이 흐르는 눈물을 경험했다. 그렇게 당할 때로 다 당하고 나서 벌렁 드러누워 하늘을 보면 아직 가슴에서 다 내려가지 못한 고독의 피 끓음이 느껴진다. 여전히 흔

들리는 배 바다, 아무런 말도 걸어오지 못하는 뜬구름...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있자니 힘들고 그 꼬리를 놔주면 죽 시로 먹고 만다는 호미난방(虎尾難放)의 상황에 정확히 해당된다.

우리 위해 희생하신 스승님 뜻대로 영생의 세계 이루자

하지만 단지 두가지 이유로 여전히 살아남는다. 첫 번째는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코너에 몰리고 시커멓게 뒤집어 써여도 당신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애를 쓰고 기를 쓰면 하얗게 벗겨지기 때문이다. 그 어떤 종류의 마귀니일지라도 그놈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는 거다. 그것을 손에 잡지 못하였다면 이 작은 몸은 아마도 벌써 오래 전에 열라대왕의 반찬꺼리가 되었으리라. 두 번째 이유로 는 희생하신 스승님 때문이다. 그 높은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처참한 모습으로 희생하신 모습을 지근의 거리에서 두 눈 똑똑히 뜨고 보았기 때문이다. 당신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었지만 너희들은 그 무궁한 세계에서 영원무궁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달라는 그 진실된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이 있다. 스승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당신에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된다. 그래서 구차한 목숨을 보존하는 거다. 아니, 쿵방거리는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고 싶은 마음은 없다. 고생고생 하다가 결국에 죽는 길로 간다면 구태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이유가 없다는 거다.

아직도 불로불사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무량대수 마귀의 군단과 싸워서 이기는지 그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 제종교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三神一體一人出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내립니다



2019 어버이날 경축행사 민병철 회장 플루트 연주 시 내린 이슬성신 (우측 광선)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복음 1장)으로 나타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

승리제단 홈페이지 www.victor.or.kr